

## 아동의 취학전 영어교육맥락과 영어유창성간의 관계 연구

친 희 영\* (고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교수)

서 현 아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좌 승 화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유아교육과 강사)

최 미 현 (부산경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우리나라의 초등 영어교육은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주 2단위씩 영어가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제 그 실시에 관한 찬반논쟁을 끝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찾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한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 반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은 유치원교육과정에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언급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동의 조기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취학전 영어교육에 관한 교육현장과 연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취학전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전 영어교육의 적절성을 영어가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영어유창성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즉,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의 영어유창성과 취학전 시기에 노출되었던 영어교육맥락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영어유창성과 관련되는 취학전 영어교육맥락 변인, 즉 아동관련 변인, 어머니관련 변인, 영어교육환경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어권 국가에서의 거주 경험이 없으며 취학전 시기까지 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85명이었다. 아동의 영어유창성 측정을 위해 사전에 초등학교 3학년 아동 528명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도를 거쳐 개발된 '영어유창성 검사'(4개 하위 능력 요인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를 사용하였으며, 취학전 영어교육맥락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로서 조사되었다. 영어교육맥락 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영어유창성을 예언하는 영어교육맥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체 영어유창성 또는 영어유창성의 일부 하위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결과한 변인들은 아동관련 변인인 영어교육을 시작할 시기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 어머니관련 변인인 자녀의 취학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월 소득이었다. 영어교육환경 변인 중 영어교육의 시작시기, 취학후 영어교육의 지속여부,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방법과 취학전 대표적인 영어교육기관 변인에 따라 영어유창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전 영어교육의 특정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교사, 교육빈도, 수업시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영어유창성의 36.3%를 예언하는 유의한 독립변인들은 영어교육 시작 시기의 아동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 외에 교사, 가정에서의 지도방법,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와 같이 대부분 영어교육환경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기 영어교육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아동의 영어유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영어교육맥락, 특히 영어교육환경의 구성에 주의해야함을 시사해 주었다.